



그림 15. 중국의 인삼 종자 처리별 파종시기 및 밋하기

자연 성숙한 종자를 개갑처리하지 않고 자연 후숙 기간을 거쳐서 파종하는 경우에는 채종 당해 연도의 가을이나 자연저장 후 이듬해 봄에 파종하는 것으로서 밋하는 시기는 가을 파종 시는 1년 지난 다음 해 그리고 자연저장 후 봄에 파종하였을 때는 다음해 봄에 밋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채종 직후나 자연 후숙 기간을 통하여 파종하는 경우에는 파종 후 자연 조건에서 후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밋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밋의 촉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공 개갑처리를 실시하여 채종 당해 연도 가을이나 이듬해 이른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채종 이듬해 해동과 더불어 3~4월경에 밋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육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인삼 파종 시기는 재배지의 기후조건과 재배특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춘파, 추파 그리고 하파를 한다. 춘파는 4월 상순부터 5월 상순까지 개갑한 종자를 파종한다. 그러면 당년에 출아한다. 중국 동북지방 남부지역은 4월 중순, 북부지역은 4월 하순~5월 초순이 적기이다. 기온이 적합할 때는 일찍 파종하면 출아에 유리하고 또 묘 생육이 안전하여 건실하다. 만약 기온이 상승하고 토양이 건조하여 파종이 늦어 종자가 밋아한 다음 파종하면 출아율과 묘삼 소질에 영향이 있고 더뎡이삼을 많이 생산한다. 추파는 당년에 채종한 종자를 8월 초에 종자를 처리하지 않고 습윤상태로 바로 파종하는 것을 추파수립(秋播水粒)이라 부른다. 길림성의 집안(集安), 요녕성의 환인(桓仁), 관전(寬甸) 및 본계(本溪) 같이 기온이 온화하고 무상기간이 긴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을 파종은 시간이 충족하고 봄에 출아가 건실하므로 인삼 재배지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개갑종자는 늦가을부터 땅이 얼기 전(10월 중, 하순)까지 파종한다. 하파(복파; 伏播라고도 함)는 전해에 채종한 마른 종자를 6월 중, 하순에 파종하고 자연 온도를 이용하여 종배 후숙을 촉진하면 다음해 봄에 출아한다. 길림성 동부의 무송(撫松), 정우(靖宇) 및 안도(安圖) 등 지방은 기후가 차고 무상기가 짧아 하파(夏播)를 많이 한다. 길림성 무송지역은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생산한 종자를 6월 하순에 파종하며, 집안지역은 봄 파종 보다는 당년 채종종자를 최아하여 8월초 이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흑룡강성에서 인삼의 파종은 봄 파종(4~5월)과 가을 파종(10월)이 많다. 그러나 길림성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종기는 파인삼(중국 인삼)은 대부분 10월 상~중순, 서양삼 직파는 8~9월로 나타났는데, 서양삼은 휴면이 길기 때문에 채종 다음해 개갑처리 없이 파종한다고 하였다.